
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, Infrastructure and Transport		보도자료		 경제의 틀을 바꾸면 미래가 달라집니다.
		배포일시	2016. 3. 16(수) 총 4매(본문 2, 참고 2)	
담당 부서	도로투자지원과	담당자	·과장 이우제, 사무관 신태상, 주무관 김정민 ·☎ (044)201-3898, 3904	
보도일시		2016년 3월 17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 3. 16(수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경인고속도로, 지하화 사업 민자절차 본격 착수

- '20년 착공, 완공 시 통행속도 시속 44→90km로 증가 -

- 1968년 개통된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인 경인선이 50여 년 만에 지하로 내려가고, 지상 구간은 일반도로와 공원 등으로 조성된다.
- 국토교통부(장관 강호인)는 지난 2월 29일 한국개발연구원(KDI)에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의 적격성조사를 의뢰하였으며, 이번 주 적격성조사 착수를 시작으로 민자사업 절차가 본격 추진된다.
- 경인지하화 사업(서인천~신월, 11.66km)은 작년 4월 경제관계장관 회의에서 민자사업 활성화방안의 일환으로 발표한 이후 지하도로 건설과 상부공간 정비방안 마련을 위한 조사용역을 시행한 바 있다.
- 국토교통부는 민간의 사업제안서와 조사용역 결과를 토대로 올해 중 적격성조사를 완료하고, 제3자 제안, 사업자 선정, 협상 및 실시협약 체결, 실시설계 등의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여 '20년 착공, '25년 개통을 추진할 계획이다.

* 상부도로 정비는 지하도로 개통 후 약 2년간 진행하여 '27년 완공

□ 현재 8차로인 경인고속도로는 지하(고속도로)와 지상(일반도로) 각 6차로로 구성되어 도로용량이 증가되고, 장·단거리 통행도 분리되어 교통흐름이 원활해진다.

○ 이에 따라 현재 평균 시속 44km인 통행속도가 2배 이상 증가해 시속 90km가 되며, 통행시간, 연료비 절감 등으로 연간 약 1,350억 원의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.

□ 한편, 지하 고속도로는 작년에 새로 도입된 투자위험분담방식*을 적용하여 통행료를 낮추고, 상부 일반도로는 무료화하여 도로 이용자들의 통행료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.

* 손익공유형(BTO-a), 위험분담형(BTO-rs) : 정부와 민간의 적절한 위험분담을 통해 사업 수익률을 낮추고, 이를 통해 통행료와 재정지원을 최소화하는 방식

□ 또한, 기존의 경인고속도로가 지나가던 공간이 사람 중심의 소통이 가능한 공간이 되도록 공원 등 녹지공간을 8만 제곱미터(m²) 이상 조성하고, 기존의 나들목·영업소 유희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등 경인선이 도시재생의 중심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.

○ 이를 위해 상부공간 활용방안에 대해 인천시, 경기도, 부천시 등 해당 지자체와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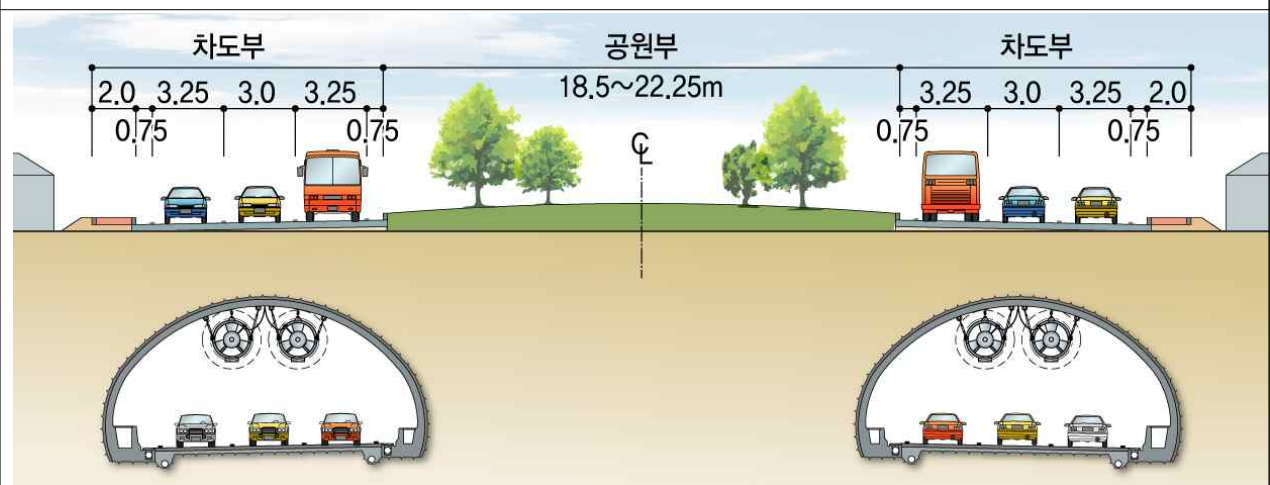
□ 국토교통부 도로투자지원과장은 “경인지하화 사업은 기존의 고속도로를 최초로 지하화하는 사업으로 도시공간 활용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”며,

○ “교통흐름 개선은 물론, 상부공간이 지역주민이 진정으로 반기는 모습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”이라고 말했다.

< 위치도 >



< 횡단면도 : 상부 6차로, 지하 6차로 >



참고2

경인지하화 사업 전·후

* 검토 과정에서 변경 가능

☐ 현재



☐ 사업 시행 후

